



2026 VISION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말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나요? 친구가 나를 오해하거나, 뒤에서 나쁜 말을 하거나, 나를 괴롭혔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아마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당시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사울이 잠든 사이에 다윗은 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올 수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자기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멀리 떨어진 산 위에 서서 사울에게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창을 보여 주며 자신이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윗을 축복합니다.

사실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데도 복수하지 않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다윗은 칼보다 믿음을 선택했고, 분노보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의 말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똑같이 갚아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하고, 분노보다 사랑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